

대학농구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에 관한 연구

유인영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university basketball players the referee decision

In-Young You

Dept.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Far East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대학농구선수들이 느끼는 심판 판정 인식조사를 분석하여 선수들과 심판의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공정하며 일관성 있는 심판판정을 통해 한국대학농구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분석 결과 대학선수들은 성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서 $p < .0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출전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신속성에서 $p < .0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라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신속성에서 $p < .0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공정성, 신속성, 신뢰성에서 $p < .001$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판배정 선입견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심리상태, 경기력에서 $p < .001$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 농구선수, 대학농구, 심판, 판정, 판단

Abstract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to provide a basis for university basketball players development university basketball players have recovered and fair confidence in the result of the determination of analyzes feel the referee judges recognized research players and referees and by the referee judged that consistency there is. The referee judged according to gender awareness and the impact analysis of college basketball players impartiality, promptness, consistency, reliability $p < .05$ level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feree judged recognition and impact of the exhibit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 < .05$ level of agility. The referee judged recognition and influence of the position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 < .05$ level of agility. impact of the judgment determining recognition fairness, promptnes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 < .001$ level of reliability. The referee judged of the psychological state is assigned prejudic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 < .001$ level.

Key Words : Basketball Players, University Basketball, Umpire, Decision, Judgment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극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FEU2014R02)

Received 28 October 2015, Revised 30 November 2015

Accepted 20 Dec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In-Young You(Dept. Sports and Leisure Studies, FAR EAST University, Professor)

Email: youin0@kd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 농구대표팀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남녀가 최초로 동반으로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남자농구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여자농구는 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 이후 2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남자 대표 팀에는 대학선수들이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금메달을 차지하는데 큰 몫을 해냈다.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은 그라운드와 신이라고도 한다.” 심판의 휘슬하나에 선수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규칙에 따라 경기를 운영하는 절대권이 심판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1]. 모든 스포츠경기에서는 지도자와 선수, 관중 그리고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이 항상 있다.

농구심판 사이에서는 경기시작 5분과 경기종료 5분을 집중하여 잘 관리하면 지도자의 항의 없는 원만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2]. 대학농구 심판들은 리그전 시즌 전에 많은 체력 훈련과 규칙 학습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하며 일관성 있는 판정으로 지도자와 선수들의 신뢰를 받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농구경기는 짧은 시간에 공격과 수비가 서로 바뀌며,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동작들이 많아 심판은 항상 주의를 집중하여 경기에 몰두하여야 한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바이올레이션 또는 반칙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위하여 FIBA(국제농구연맹)에서는 2015년부터 아마추어 농구경기에 비디오판독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심판(referee)은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운영하고 판정하는 경기장 내의 중립적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스포츠 경기를 활성화시켜 관중에게 흥미를 제공케 하며, 선수의 기능이나 지도자의 지도능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

모든 경기에서 심판의 영향력은 절대적 이지만, 심판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기록경기 선수들은 심판을 비교적 신뢰하는 편이지만 대인, 투기, 단체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심판을 불신하는 경향이 높다[4]. 이와 관련하여 심판 판정시비에 따른 논란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5].

심판 판정시비와 관련하여, 2014년 7월에 열렸던 아시아-퍼시픽 챌린지 농구경기 결승전에서는 모 대학 감독

이 심판판정에 항의하며 심판의 머리에 박치기까지 해 곧바로 퇴장명령을 받았으며, 대한농구협회는 상벌위원회에서 해당 감독에 대하여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6].

농구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 농구발전에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아마농구 심판 매수사건은 성적지상주의에서 만들어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7].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농구 심판판정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농구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스포츠 심판의 자격은 그가 스포츠 전문가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정해진 규칙에 준하여 경기진행을 리드하고 경기의 승패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 1차 임무인 만큼 심판은 해당 규칙에 정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 특히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종목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더 나아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투철한 사명감도 지녀야 한다[3].

또한 농구나 축구 등의 구기에 있어서 심판은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선수들이 뛰는 만큼, 때로는 그 이상 될 수 있는 체력이 요구되며, 실제로 미국 대학농구의 경우, 심판은 경기 중 게임당 평균 4마일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8]. 따라서 농구 심판은 농구 전문 자격 기준에서 자신의 체력관리는 필수적이다.

이외에 심판은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정하고,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심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야 하고, 심판의 권한은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9]. 하지만 심판도 완벽 할 수 없기에 항상 오심은 존재한다.

농구경기 심판은 대학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뛰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특성상 계속되는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명쾌한 판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대학농구 심판들은 팀의 감독, 코치와 선수들에게 신뢰받는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민첩한 판정 위치, 일관성 있는 판단과 결정 그에 따른 규칙 적용을 통하여 팀의 관계자 및 선수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거나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농구심판들은 자신의 판정을 통한 오심에 대하여 실수를 줄이고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수들에게 심판의 작은 오심은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그 동안 노력과 힘든 훈련과정의 보상이 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노력의 힘든 과정의 보상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2].

심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심판 판정에 관한 인식(유희선, 2013; 최태호, 이광호, 2012; 유인영, 모창배, 2011; 김동인, 2010; 김성현, 2009; 박찬혁 외, 2004; 정현도, 2005; 방열, 2004; 김사엽 외, 2000) 등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다만 농구심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점은 농구계의 심판 불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남자대학농구의 홈 & 어웨이 리그전은 한국농구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에서는 남자대학소속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우리나라가 우승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2015년부터는 여자대학농구를 추가로 남녀대학농구 리그가 시행된다. 이는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진체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포츠복지와 우리나라 농구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판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학 농구선수들의 심판판정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도출된 자료를 통해 각 팀의 감독, 코치 및 선수들과 심판간의 판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공정하고 깨끗한 심판판정을 통하여 한국대학농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농구심판 판정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 조사를 위하여 2014년 현재 대한농구협회에 선수 등록되어 있는 대학 남, 여 농구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2014년 실시된 대학농구리그전에 참가했던 각 대학팀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남자대학팀 12팀, 여자대학팀 7팀 선수들 중 설문에

응답한 총 253부 가운데 조사된 자료에서 답의 내용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응답 자료 32부는 실제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221부의 연구 설문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umber of cases (n)	Percentage (%)
Gender	Male	151	68.3
	Female	70	31.7
Participate	Main Player	78	35.3
	Changed Player	143	64.7
Grade	1 st year	84	38
	2 nd year	67	30.3
	3 rd year	46	20.8
	4 th year	24	10.9
Position	Guard	89	40.3
	Forward	96	43.4
	Center	36	16.3
Career	Less than 5 years	15	6.8
	5-7 years	62	28.1
	8-10 years	91	41.2
	11-13 years	44	19.9
	13 years	9	4.1
Total		221	100%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농구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내용은 크게 대학농구 선수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심판의 판정 인식, 심판배정 선입견, 심판판정이 심리상태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 문항을 포함 하였다.

설문지는 박대성(2007), 유인영,모창배(2011)의 연구에서 이용된 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대학농구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배경변인으로 하였으며, 심판의 판정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다. 또한 심판배정 선입견과 심판의 판정이 선수들의 심리상태 및 경기내용 미치는 영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구성 제작되었다.

설문지 구성 지표 및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A major component indicators questionnaire

Composition	Contents	Item Number
Personal characteristic	Gender, Participate, Grade, Position, Career	5
Referee's Recognition decision	Fairness, Speed, Consistency, Reliability	16
The referee assigned to prejudice	Relationship with the Referee	5
Influence	Psychological State, Athletic Performance	6
Total		32

본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문항 간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는 Cronbach's α 방법을 사용하여 각 척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심판판정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credibility the referee's judge

Variable	Sub Factor	Cronbach's α
Awareness of the referee's judge	Fairness	.704
	Speed	.781
	Consistency	.786
	Reliability	.721
prejudice of allot the referee	Relationship	.830
Influence	Psychological State	.741
	Athletic Performance	.791

2.3 자료처리 방법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에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누락된 자료들은 실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분석 가능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 Window Program을 사용하였고, 아래와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자료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성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ies)을 이용하였다.

셋째, 배경변인에 따른 경기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집단 간의 유의한 통계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재확인을 위해 통계적 검증이 필요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Scheffe)은 각 집단 간의 사례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넷째, 심판판정 인식 및 심판배정 선입견이 경기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농구선수들의 심판판정 및 경기 영향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2014 대학농구리그전에 참가한 각 남, 여 대학팀의 선수들을 통하여 조사 연구되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3.1 성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

대학농구선수들의 남, 여 성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남, 여 성별에 따른 심판판정의 인식은 <Table 4>, 성별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Table 5>와 같다.

<Table 4> Based upon gender of awareness the referee's judgement t-verification

		N	M±SD	t	p
Fairness	Male	151	2.889±.604	6.687	.000***
	Female	70	2.321±.546		
Speed	Male	151	3.324±.557	5.855	.000***
	Female	70	2.832±.630		
Consistency	Male	151	3.114±.610	5.385	.000***
	Female	70	2.628±.652		
Influence	Male	151	3.200±.526	5.798	.000***
	Female	70	2.728±.633		

*** p<.001

<Table 5> Influence of the game, according to gender t-verification

		N	M±SD	t	p
Psychological State	Male	151	3.788±.707	-.208	.835
	Female	70	3.809±.721		
Athletic Performance	Male	151	3.278±.788	-1.074	.284
	Female	70	3.395±.674		

대학농구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성 요인은 남자대학선수(M=2.889)의 평균이 여자대학선수(M=2.3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선수와 여자대학선수 간에 심판판정에 대한 공정성을 느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검증의 결과 $p < .001$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성은 남자대학선수(M=3.324), 여자대학선수(M=2.832)로 남자대학선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선수와 여자대학선수 간에 심판판정에 대한 신속성을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검증의 결과 $p < .001$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은 남자대학선수(M=3.114), 여자대학선수(M=2.628)로 남자대학선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선수와 여자대학선수 간에 심판판정에 대한 일관성을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검증의 결과 $p < .001$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은 남자대학선수(M=3.200), 여자대학선수(M=2.728)로 남자대학선수들이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선수들이 여자대학선수들보다 심판을 신뢰하며 여자대학선수들이 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검증의 결과 $p > .001$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농구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상태는 남자대학선수(M=3.788), 여자대학선수(M=3.809)로 비슷한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t-검증의 결과에서는 $p < .05$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력은 남자대학선수(M=3.278), 여자대학선수(M=3.395)로 비슷한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t-검증 결과에서 $p < .05$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출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

대학농구선수들의 경기출전에 따른 집단 간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6>, <Table 7>과 같다.

<Table 6> Awareness of the referee's judgement, According to participate t-verification

		N	M±SD	t	p
Fairness	Main	78	2.621±.691	-1.499	.135
	Changed	143	2.757±.611		
Speed	Main	78	3.019±.649	-2.664	.008**
	Changed	143	3.250±.596		
Consistency	Main	78	2.884±.668	-1.258	.210
	Changed	143	3.001±.657		
Reliability	Main	78	2.977±.643	-1.338	.182
	Changed	143	3.090±.578		

** $p < .01$

<Table 7> Influence of the game, according to participate t-verification

		N	M±SD	t	p
Psychological State	Main	78	3.747±.711	-.726	.469
	Changed	143	3.820±.710		
Athletic Performance	Main	78	3.371±.800	.822	.412
	Changed	143	3.284±.729		

대학농구선수들의 경기출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성은 주전선수집단(M=2.621), 교체선수집단(M=2.757)로 비슷한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t-검증 결과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속성은 주전선수집단(M=3.019), 교체선수집단(M=3.250)로 교체선수집단이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t-검증 결과 $p <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관성은 주전선수집단(M=2.884), 교체선수집단(M=3.001)로 역시 비슷한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t-검증의 결과 $p < .05$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뢰성은 주전선수집단(M=2.977), 교체선수집단(M=3.090)로 역시 비슷한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t-검증의 결과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농구선수들의 출전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상태는 주전선수집단(M=3.747), 교체선수집단(M=3.820)로 비슷한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t-검증의 결과 $p <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력은 남자대학선수(M=3.371), 여자대학선수(M=3.284)

<Table 8> Awareness of the referee' s judgement, According to Grade ANOVA analysis

변인	Division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Square Mean	F	Significance Probability	posteriori tests
Fairness	Intergroup	1.252	3	.417	1.010	.389	NS
	Within group	89.632	217	.413			
	Total	90.883	220				
Speed	Intergroup	2.412	3	.804	2.096	.102	NS
	Within group	83.247	217	.384			
	Total	85.659	220				
Consistency	Intergroup	3.165	3	1.055	2.454	.064	NS
	Within group	93.301	217	.430			
	Total	96.466	220				
Reliability	Intergroup	1.303	3	.434	1.198	.312	NS
	Within group	78.687	217	.363			
	Total	79.990	220				

<Table 9> Influence of the game, According to Grade ANOVA analysis

변인	Division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Square Mean	F	Significance Probability	posteriori tests
Psychological State	Intergroup	.109	3	.036	.071	.975	NS
	Within group	110.814	217	.511			
	Total	110.923	220				
Athletic Performance	Intergroup	.265	3	.088	.153	.927	NS
	Within group	124.996	217	.576			
	Total	125.261	220				

로 비슷한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t-검증의 결과 $p < .05$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학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

대학농구선수들의 학년에 따른 집단 간의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 <Table 9>와 같다.

학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은 <Table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판판정에 인식에 대한 하위요인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서 4학년 학생집단이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집단 보다 비교적 심판판정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Table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4 포지션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

대학농구선수들의 포지션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0>, <Table 11>과 같다.

포지션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은 <Table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하위요인 신속성에서 가드 포지션의 선수집단이 센터 포지션 선수집단 보다 비교적 심판판정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 포지션 선수집단은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서 가드 포지션, 포워드 포지션 선수집단 보다 심판판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른 집단 간의 경기 영향력은 <Table 11>

<Table 10> Awareness of the referee' s judgement, According to Position ANOVA analysis

변인	Division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Square Mean	F	Significance Probability	posteriori tests
Fairness	Intergroup	2.019	2	1.009	2.476	.086	NS
	Within group	88.865	218	.408			
	Total	90.883	220				
Speed	Intergroup	2.464	2	1.232	3.229	.042*	1>3
	Within group	83.195	218	.382			
	Total	85.659	220				
Consistency	Intergroup	1.904	2	.952	2.195	.114	NS
	Within group	94.562	218	.434			
	Total	96.466	220				
Reliability	Intergroup	1.063	2	.531	1.467	.233	NS
	Within group	78.927	218	.362			
	Total	79.990	220				

* p<.05

<Table 11> Influence of the game, According to Position ANOVA analysis

변인	Division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Square Mean	F	Significance Probability	posteriori tests
Psychological State	Intergroup	1.403	2	.702	1.397	.250	NS
	Within group	109.520	218	.502			
	Total	110.923	220				
Athletic Performance	Intergroup	.886	2	.443	.776	.461	NS
	Within group	124.375	218	.571			
	Total	125.261	220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5 경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

대학농구선수들의 경력에 따른 집단 간의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2>, <Table 13>과 같다.

경력에 따른 집단 간의 심판판정 인식은 <Table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조사되지 않았다.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하위요인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서는 13년 이상의 선수경력자 집단이 심판판정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지션에 따른 집단 간의 경기 영향력은 <Table 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조사되지 않았다.

3.6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경기 영향력

대학농구선수들의 심판판정에 대한 인식을 경기 영향력 요인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Table 14>, <Table 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14>에 의하면, 공정성($\beta=-.360$)에서 경기 영향력의 심리상태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신속성($\beta=.430$)에서 경기 영향력의 심리상태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4개의 변인은 심리상태 전체 변량의 약 11.8%를 설명해 주고 있다.

<Table 15>에 의하면, 신뢰성($\beta=.238$)에서 경기 영향력의 경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4개의 변인은 심리상태 전체 변량의 약 2.5%를 설명해 주고 있다.

<Table 12> Awareness of the referee's judgement, According to Career ANOVA analysis

Variable	Division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Square Mean	F	Significance Probability	posteriori tests
Fairness	Intergroup	2.869	4	.717	1.760	.138	NS
	Within group	88.015	216	.407			
	Total	90.883	220				
Speed	Intergroup	3.035	4	.759	1.984	.098	NS
	Within group	82.624	216	.383			
	Total	85.659	220				
Consistency	Intergroup	2.140	4	.535	1.225	.301	NS
	Within group	94.326	216	.437			
	Total	96.466	220				
Reliability	Intergroup	3.507	4	.877	2.476	.045	NS
	Within group	76.483	216	.354			
	Total	79.990	220				

<Table 13> Influence of the game, According to Career ANOVA analysis

Variable	Division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Square Mean	F	Significance Probability	posteriori tests
Psychological State	Intergroup	3.781	4	.945	1.906	.111	NS
	Within group	107.142	216	.496			
	Total	110.923	220				
Athletic Performance	Intergroup	1.347	4	.337	.587	.672	NS
	Within group	123.914	216	.574			
	Total	125.261	220				

<Table 14> Awareness of referee's judgement and sub factor psychological state with influence of the game of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B	SEb	β	t	p
(Constant)	3.481	.254		13.681	.000***
Fairness	-.398	.105	-.360	-3.781	.000***
Speed	.459	.112	.430	4.084	.000***
Consistency	.010	.116	.010	.088	.930
Reliability	-.030	.127	-.025	-.235	.814
R2	.118				

Dependent variable: Psychological State

***p<.001

<Table 15> Awareness of referee's judgement and sub factor Athletic Performance with influence of the game of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B	SEb	β	t	p
(Constant)	3.234	.284		11.691	.000***
Fairness	-.182	.118	-.155	-1.543	.124
Speed	-.099	.126	-.082	-.792	.429
Consistency	-.037	.129	-.033	-.290	.772
Reliability	.298	.142	.238	2.105	.036*
R2	.025				

Dependent variable: Athletic Performance

*p<.05

3.7 심판판정 선입견에 따른 경기 영향력

대학농구선수들의 심판배정 선입견에 따른 경기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Table 16>, <Table 1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16>에 의하면, 심판판정 선입견($\beta=-.378$)은 경기 영향력의 심리상태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은 심리상태 전체 변량의 약 14.3%를 설명해 주고 있다.

<Table 16> prejudice of referee's assign and sub factor psychological state with influence of the game of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B	SEb	β	t	p
(Constant)	2.499	.219		11.408	.000***
Assign Referee prejudice	.389	.064	.378	6.038	.000***
R2	.143				

Dependent variable: Psychological State

***p<.001

<Table 17>에 의하면, 심판배정 선입견($\beta=.439$)은 경기 영향력의 경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은 심리상태 전체 변량의 약 19.3%를 설명해 주고 있다.

<Table 17> prejudice of referee's assign and sub factor Athletic Performance with influence of the game of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B	SEb	β	t	p
(Constant)	1.714	.226		7.590	.000***
Assign Referee prejudice	.480	.066	.439	7.236	.000***
R2	.193				

Dependent variable: Athletic Performance
***p<.001

4. 논의

모든 스포츠에서 심판의 판정 권한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농구경기에서는 판정에 대한 질의는 감독 및 코치도 주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경기력도 뛰어나고 볼거리가 많아야 하지만, 그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판판정이 경기를 보는 모든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 판정이 되어야 한다.

박천조 외(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서로의 경쟁을 통한 승리를 원하고 심판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정확한 판정을 목적하기 때문에 심판들이 선수들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심판의 판정에 따른 영향을 선수들이 많이 받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심판의 판정 결과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모든 운동경기는 심판들과 선수들과의 사이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심판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에서는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에서 남자대학선수들이 여자대학선수들 보다 심판판정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동구(2004), 김사엽, 김희중(2000), 박천조 외(200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선수 집단에서 오랜 농구선수 경력으로 심판판정을 많이 경험했던 13년 이상의 WKBL 프로농구 출신 경력자가 많아 심판판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출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에서는 주전선수집단과 교체선수집단의 비교에서 신속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유희선(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대학 농구경기의 특성상 경기 운영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들의 판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속한 판정의 결정은 선수들에게 심판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이러한 결과는 심판 불신풍조의 개선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학년, 경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에서는 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이 조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지션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에서는 신속성에서 가드 포지션 집단 선수들이 센터 포지션 집단 선수들 보다 심판판정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원택(2008)의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정확성, 활동성과 협력성, 태도, 공정성, 신뢰성, 판정영향력에서 심판 인식도는 유의한 차이점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신장 조건에 따른 농구경기 특성상 골밑에서 몸싸움으로 신체접촉이 많은 센터포지션의 선수들이 파울 판정이 느리다고 느끼는 인식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각 포지션 별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에서는 심판의 신속성에 대하여 대학농구선수들이 느끼는 심리상태와 경기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희선(2013), 김사엽 외(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선수들은 심판의 자질과 태도가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선수들은 심판의 능력, 자질보다는 판정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기 위한 심리상태에 심각한 문제를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최태호, 이광호(2012)의 U-리그참가 대학축구 선수들의 심판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심판판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그날 게임에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고 있어 심판의 판정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지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하여 심판에 대한 불신, 심판 교육제도의 개선, 심판판정의 발전 방안을 기준으로 심판판정의 경기진행 태도와 자질 향상에 개선을 가져 오길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4 대학농구리그에 참가한 대학농구선수들이 느끼는 심판판정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대학농구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 대학농구선수들에게 설문 검사를 실시하고 t-검증, 일원변량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학농구선수들의 남, 여 성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이 $p < .0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대학농구선수들의 출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신속성에서 $p < .0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대학농구선수들의 학년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p < .0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대학농구선수들의 각 포지션 별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신속성에서 $p < .0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농구선수들의 선수경력에 따른 심판판정 인식 및 경기 영향력은 $p < .05$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대학농구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공정성, 신속성, 신뢰성에서 $p < .001$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곱째, 대학농구선수들의 심판배정 선입견에 따른 경기 영향력은 심리상태, 경기력에서 $p < .001$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ar East University Research Grant(FEU2014R02)

REFERENCES

- [1] Won-Taeck No, "The study of recognition for referee in football players",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2008.
- [2] In-Young You · Chang-Bae Mo, "A study Referee Perceptions about the University Basketball Play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 15, No. 4, pp. 161-171, 2011.
- [3] Tae-Ho Choi, Kwang-Ho Lee, "The research on u-league college soccer player's referee recogni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y, Vol. 47, pp. 11-24, 2012.
- [4] Wung-Gi Min,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attitudes of each athlete stars of judgment",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1984.
- [5] Mi-Suk Park, "A Study on Stress Factors of Football Referees",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2010.
- [6] My Daily, "Jae-Geun Jung, impossible to convince shameful conduct, supervision referee serious distrust era", 2014.
- [7] Seoul Newspaper, "I'm asking a favorable judgment" Judgment Number of amateur basketball. Association vice-president caught, including 151 people", 2012.
- [8] Yul Bang, "Officiating in Korean Professional Basketball Major Problems and Some Solution Thereto",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11, No. 2, pp. 159-175, 2004.
- [9] Tae-Young Lee, "Roles and Challenges for judgment recovery authority", Sports Association Sports Association referee training seminars for franchise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03.

- [10] Dong-Gu Kang, "The recognition of the judgment determining influence on the consciousness and the game of the high school judo athletes", Korea sport research, Vol. 15, No. 5, pp. 779-786, 2004.
- [11] Dong-In Kim, "The study of recognition for referee in high school football players", M.A.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2010.
- [12] Sa-Yeob Kim, Hee-Jung Kim, "A Study of the Influence of Hockey Judges' Decition on Athletes' Mind and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39, No. 3, pp. 110-118, 2000.
- [13] Sung-Hyun Kim,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Wheelchair Basketball Players towards the Referee's Decition",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09.
- [14] Hee-Jung Kim, "Hockey Referee determined that the impact on the middle school, high school player of the ceremony and the game",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00.
- [15] Dae-Sung Park, "Effects of Taekwondo athletes' perception of the judges' judging on their psychology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2007.
- [16] Chan-Hyuk Park, Min-Kyu Jung, Ho-Chun Yun, "Perceptions about the referees decision of the national basketball player",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9, No. 2, pp. 199-208, 2004.
- [17] Chun-Jo Park, Hu-Bong Lee, Sang-Seo Baek, Kyung-Jin Kim, Gil-Young An, "Referee determined that the impact on the handball game", Korea sport research, Vol. 15, No. 5, pp. 787-798. 2004.
- [18] Won-Taek No, "The study of recognition for referee in football players",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2008.
- [19] Hak-Jun Lee, "Misjudgment of game offi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5, No. 6, pp. 81-89, 2006.
- [20] Hee-Sun Yu, "The influence of the referee judgement recognition in college and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M.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g-in University, 2013.
- [21] Hyun-Do Jung, "Study on the decision of the referee taekwondo players", Korea sport research, Vol. 16, No. 3, pp. 851-858, 2005.
- [22]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Second Edition. New York : McGraw-Hall.
- [23] Jerry. Grunski(1999). *Successful Sports Officiating*, NASO.
- [24] Weinberg, R. S. & Richardson, P. A.(1995). *Psychological of Officiating*. Leisure Press Champaign, Illinois. Van De Ven, A. H., & Ferry, D.L.(1979).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 New York : John Willey and Scons.

유 인 영(You, In Young)



- 1998년 2월 : 청주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2001년 2월 : 청주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6년 2월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농구, 여가, 체육정책
- E-Mail : youin0@kdu.ac.kr